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46

룻과 결혼한 보아스

(룻기 1:19~4:22)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떠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두 아들도,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을 음식이 필요했어요.
당시는 한참 보리 수확을 하던 추수기였는데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죠.

“어머니, 오늘은 밭에 한 번 나가볼까 해요.
밭에 가보면 남들이 곡식을 수확하다 떨어뜨린
이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제가 주워와도 봐 주지 않겠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허락해 주었어요.
두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선 그렇게라도
해야만 했으니까요.

“헛차! 아유, 일이 아주 산더미구만
곡식이 끝이 없어, 끝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야 낫죠!
이게 얼마만의 풍년이에요 아저씨.
올겨울엔 배고플 일은 없을 거예요. 헤헤헤.”

밭마다 수많은 일꾼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뒤에 다른 나라에서 온 여인
룻이 있었죠!

허리가 굽어질 듯 아프고 남의 밭에서
눈치도 보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이삭을 주웠어요.

룻이 이삭 줍던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는데 성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어유, 보아스 나으리 나오셨습니까? 헤헤.”

“다들 수고가 많네!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함께하시길 바라네! 하하하!”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던 보아스가 룯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하인에게 물었죠.

**“아니, 저~기서 이삭을 줍는 여인은 누구냐.
처음 보는 여인인데..”**

**“아 예~ 이번에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립니다요.
당장 식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떨어져 있는
이삭 정도는 주워가라고 했습죠.
어휴 저 여자도 대단하지 아까 잠깐 오두막에서
쉬었을 때 배배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으리, 저 여인을 돌려보낼갑쇼?”**

보아스는 룻이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의 용기가
멋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룻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나는 이 밭의 주인, 보아스요.
혹시 원한다면, 앞으로 내 밭에서 얼마든지 곡식을
주워가도 괜찮다는 말을 하러 왔소.
그리고 저~쪽에 가면 물항아리가 있으니
목이 마르거나 하면 언제든지 마셔도 좋소.”

보아스의 친절에 룻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인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보아스의 친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보아스는 룻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주었어요.

어찌나 푸짐했던지 룻이 배부르게 먹고도
한참 남아서 시어머니에게 드릴 몫까지
챙겨갈 수 있었죠.

그날 밤. 많은 양의 곡식과 푸짐한
음식을 본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어요.

“아, 아니? 이렇게나 많이 가져왔단 말이나?
누가 너에게 도움을 준 모양이구나.”

“맞아요. 어머니,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분께서 특별히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아 보아스였구나.. 보아스는 나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나오미와 룻은 함께 기뻐했어요.
시간이 흘러 추수가 끝나고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잔치였죠.
나오미는 그곳에 룻을 보냈고
보아스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사실 보아스는 룻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룻 정말 반갑소. 하나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시길.
이번 추수기에 당신이 보여준 성실함은
그 무엇보다도 빛이 났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당신의 착한 행동을 알고 있대요. 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보아스가 말을 이어갔어요.

**“룻, 나는 그대와 나오미를 책임지고 돌봐주고 싶소.
하지만 그대도 알다시피
나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어서...”**

보아스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어요.
왜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고 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남은 가족을
책임지게 돼 있었거든요.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룬과 결혼하고
그 가족을 돌봐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룬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도 커져 있었어요.

날이 밝자,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을 찾아갔어요.
증인이 되어 줄 열 명의 사람들도 함께 데려갔죠.

**“이보시오.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그만큼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요.
당신이 정말 룻과 결혼해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나에게 그 자격을 넘겨주시오.
나는 룻과 결혼해서 그녀를 행복하게 해 주고
나오미를 잘 돌봐줄 자신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태도는 무척이나 당당했어요.
그 모습을 본 친척의 마음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아이 그렇다면야 좋습니다!
나는 룻과 결혼하지 않겠소.
여기 있는 열 명의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리다.
당신이 룻을 돌봐 주시오.”**

여러분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룻은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만을 믿었고.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 보아스를 보내 주신 거죠.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결혼해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고, 얼마 후엔 아기도 낳았어요.
그리고 훗날 보아스와 룻의 자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탄생하게 된답니다!